

광양항에 4399억 투입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 조성

여수해수청 기초조사 용역 나서...582만㎡ 규모 내년말 공사 착수 적정 수심으로 항로안전 확보하고 부족한 항만물류용지 확보 기대

광양항에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된다.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선박대형화 등에 따른 광양·여천 순환항로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남해서부권역의 항만·어항 건설에서 발생하는 해저 준설토 약 5000만㎡ 수송을 위해 582만㎡ 규모의 '남해서부권 광역 준설토 투기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기초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총 사업비 4399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

남해 국토교통부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완료했으며, 연내 기초조사 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입찰공고를 해 2021년 말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되면 연간 약 6만 척 이상의 대형선박이 입출항하는 광양·여천지역 순환항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항만물류용지 확보로 물동량



광양항에 건설 예정인 '남해서부권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감도.

을 창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오수 여수해수청 항만건설과장은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은 서남해권 항로의 적정 수심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과 부족한 항만물류용지 확보로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포스코케미칼 노사 24년 연속 임금협상 무교섭 위임

1000인 이상 제조 대기업 중 최장기록 신회의 노사문화 통해 상생 발전 다짐

포스코케미칼 노사가 24년 연속 임금협상을 무교섭 위임했다. 29일 포스코케미칼에 따르면 지난 26일 포항 청림동 본사에서 열린 '2020년 임금 무교섭 위임 조인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경준 대표이사, 이상우 제조노조 위원장, 황성환 정비노조 위원장, 이봉학 노경협의회 근로자 대표, 신용수 정비노조 광양지부장이 참석했다. 노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와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임금 무교섭에 합의했다.

이로써 포스코케미칼은 1997년부터 24년 연속 임금 무교섭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이는 1000인 이상 제조 대기업 중 최장 기록이다. 민경준 대표이사는 "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가 원동력이 되어 포스코케미칼이 지금까지의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화학과 에너지소재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도약해 나가자"고 말했다. 노동조합 대표자들도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회사가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에서 성과를 거두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임을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상생이 회사의 비전 달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노사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포스코 케미칼 노사가 지난 26일 포항 본사에서 임금 무교섭 위임 조인식을 했다. <포스코케미칼 제공>

광양에도 세무서 생겼다

숙원사업 해결...다음달 3일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개청

광양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무서가 문을 연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다음달 3일 광양시 중마중앙로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문을 연다. 광양은 국제물류 중심지인 광양항과 세계적 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철 연관 업체가 입주해 국제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지난 2018년부터 세무서 유치에 힘을 쏟았다. 시민 A씨는 "국제 민원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세무서가 없어 불편했다. 광양에도 세무

서가 문을 열게 돼 기쁘다"며 세무서 개청을 반겼다.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는 4팀 32명이 상주한다. 사업자등록,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부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와 법인사업자 세원 관리 등 국제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세무서 개청으로 시민과 기업인들이 국제 업무를 더 가까이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개청을 위해 애쓴 순천세무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다음달 3일 광양시 중마중앙로에 문을 연다.

광양시 모든 가정에 마스크 5장씩 배부

소외계층 등 지속적 공급키로

광양시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가정에 마스크를 5장씩 배부한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마스크 21만장을 확보해 지난 26일부터 읍·면·동을 거쳐 광양지역 모든 가정에 3장씩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마스크 14만장을 확보해 세대별로 2장씩 지급한 바 있다. 광양시는 정부의 공적 판매처 마스크 공급 물량 80% 확대로 민간 물량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무상 공급을 결정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소외계층과 대민 접촉이 많은 운수업 종사자, 우체국 집배원, 식당 종사자, 일반보협 종사자 등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국가재난인 코로나19로 광양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등 비용 전액 지원

광양시 8억3500만원 투입

광양시는 올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양시는 8억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와 토양검정·수질·잔류농약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활성화와 생산 농가의 부담을 줄인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는 친환경인증서와 인증수수료 납부 영수증,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는 또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유기농업 자재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89억8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삼식 광양시 농업지원과장은 "광양 친환경 인증 면적은 2449ha, 경지면적 대비 49%로 전남지역 1위"라며 "친환경농업 인증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